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온라인 공모전

10월 21일까지 유아~고등학생 등 모든 학생 대상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서 접수

군산시는 29일 가천문화재단(설립자 이길여·이사장 윤성태)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예술적 소양을 계발하고 상상력을 북돋기 위한 '제8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를 온라인 공모전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는 가천재단이 주최하고, 전라북도교육청,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군산교육지원청 등이 후원하는 전국 규모 대회다.

대상은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고, 시상도 각 부문별로 이뤄진다.

이번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에서 신청하면 되고, 접수기간은 30일부터 오는 10월 21일까지다.

저학년(유아부, 초등학교 1~3학년)은 8월, 고학년(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은 4월 도화지에 '자랑스러운 우리문화' 주제로 그림을 그려 우편으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 모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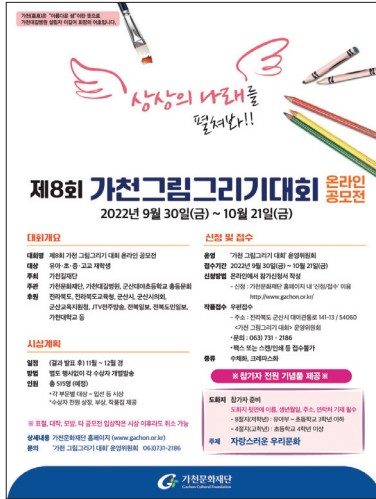
수상자는 각 부문별(유아, 초·중·고 구분, 각 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 선정)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500여 명을 선정하고,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전라북도지사상(각 부문 대상)을 비롯해 전라북도교육감상, 군산시장상, 군산시의회의장상, 군산교육장상 등 다양한 상장과 작품집, 부상이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요강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는 전북 군산 출신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2014년 모교 군산대 야초등학교에 국내 최대수준의 '가천이길여도서관'을 건립·기증한 것을 기념해 2015년부터 개최됐다. 이후 매년 군산은파호수공원에 학생과 가족 등 1만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가족축제로 자리잡은 전국 규모의 그림대회다.

/군산=김광민 기자



제8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온라인 공모전 포스터

들썩들썩 춤추는 미술관 '댄싱 뮤지엄'

김제문화예술회관, 10월 14일 방방곡곡 문화공감 첫 번째 이야기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첫 번째 이야기 가족발레 '댄싱 뮤지엄'이 개최된다.

상상 속의 미술관인 '춤추는 미술관'에는 주인 '마스터'와 조수 '토토'가 살고 있다. 마스터는 이 미술관에는 세상의 모든 미술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토토는 의심스러워지만 그냥 믿기로 하고 그저 춤을 그린 그림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걱정과 시름이 어느덧 사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연극스토리에 익살스러운 캐릭터로 재미만방! 웃음 뽀뽀! 무용수들과 연극 배우들이 함께 꾸미는 들썩들썩 춤추는 미술관 '댄싱 뮤지엄'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환상의 가족 발레극으로 신나는 예술여행을 떠나보자!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주최하고 김제시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으로 발레, 클래식, 세계 명화를 한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제일 쉬운 문화생활을 느낄 수 있다.



관람권 예매는 10월 4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하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용담댐 수몰지역 관련 기록물 찾아요"

진안역사박물관, 문화·생활상 담긴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 대상 수집

진안역사박물관 29일 사라진 지역의 역사문화와 생활상을 추억하고 보존·전승하기 위해 용담댐 수몰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 및 역사자료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집대상유물은 용담면, 안천면, 상전

면, 정천면, 주천면, 진안읍 일원에 용담댐 수몰로 사라진 지역과 마을의 수몰 이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마을의 풍경이나 학교·관공서의 모습, 마을의 관상제 관련 사진·영상이나 졸업앨범 등

누구나 가지고 있을법한 자료이나 미처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자료 등이다. 수집된 자료는 진안역사박물관에 영구 보존되고, 박물관 문화유산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록물 수집방식은 무상기증방식으로, 10월 24일까지 기증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며, 자체 평가와 전문가 심의, 수집예정자료의 화상공개 등의 절차를 거쳐 완료된다. 기증서는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과 진안역사박물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유니온시티, 이팝프렌즈에 500만원 후원



(주)유니온시티가 전주 문화예술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 이팝프렌즈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장은성 기자

(주)유니온시티(대표 임동욱)가 전주 문화예술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 이팝프렌즈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유니온시티는 국내 최초 와이어 없는 신호등을 제작한 기업으로, 미래지향적인 경영 정책의 적용과 우수한 지역 인력 확보,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 실적을 위해 매출의 5%를 기술 개발에 투자하며 산업발전과 예술에 일익을 다하고 있다. 현재는 발걸 의자가 장착된 버스 정류장으로 지역 내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예술 후원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약속하는 자리가 됐다.

임동욱 대표는 "지역 내 탄소예술 작가의 발굴 육성을 위한 예술 후원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탄소예술작가와 탄소기술이 융합해 새로운 탄소예술산업을 견인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고립된 감정' 박솔이 개인전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은 10월 7일까지 전북예술회관 지하 1층 특별전시실에서 박솔이 개인전 '고립된 감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짧은 작가 특유의 개성 있는 색 구성과 표현이 잘 살아있는 동물(기린)을 오브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가는 "정신적·신체적으로 고립돼 가는 사회 속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이들의 감정과 남들이 볼 수 없는 자신만의 내면에 감춰진 진실한 감정을 동식물이라는 제3의 개체의 존재로서 담아내고자 했다"며 "나의 작품을 보며

본인의 감정을 마주하고 자신에게 좀 더 진솔해 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에서는 도내 시각분야 신진·경력 단절 예술가의 예술계 진입을 위해 전시 공간 무료 대관과 홍보를 지원하는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를 운영, 시각분야 예술가들의 활동의 기회 제공 및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1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하반기 예술인 역량강화 재교육 참가자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은 10월 26일까지 예술인 역량강화 재교육 지원사업 '예술, 희망 the하기'의 도내 예술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9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교육과 연계해 도내 예술인의 유튜브 홍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기획서 작성과 결과 보고를 위한 정산 등 실무중심의 기초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은 1회차 '유튜브

홍보 콘텐츠 운영 실무 교육', 2회차 '문화예술지원사업 기획서 쓰기 교육', 3회차 '세무 기초와 지원사업 정산 교육'을 주제로 10월 2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도내 예술인들은 10월 26일까지 담당자 이메일(j_7118@hanmail.net) 또는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28, 744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